

제6장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일본

1. 제1차 세계대전

1 총력전의 충격 -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떠한 배경 하에서 일어났으며,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사진: **병기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제1차 세계대전 중 남성들은 병사로서 전쟁터로 파견되고, 남은 여성들이 공장 등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일까.」

제1차 세계대전과 총력전

20세기에 들어서자, 식민지 등의 해외시장과 발칸반도의 지배를 둘러 싸고 독일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의 **삼국동맹**[三國同盟]과 영국 · 러시아 · 프랑스의

삼국협상[三國協商]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1914(다이쇼 3)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의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발단으로 독일 · 오스트리아(주 1) 측에 가담한 나라들(동맹국측)과 삼국협상 측에 가담한 나라들(연합국측)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제1차 세계대전**). 일본은 일영동맹을 이유로 참전하였고, 결국 미국도 삼국협상 측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전쟁은 유럽을 넘어서 확대되었습니다.

전쟁이 예상 외로 길어지고 비행기 · 전차 · 잠수함 · 독가스와 같은 신병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상자 수는 늘어 났으며 더욱 많은 병사와 병기가 필요했습니다.

각국은 식량을 배급제로 바꾸거나 여성과 청소년까지도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등, **총력전**[總力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주 1. 삼국동맹국 중 이탈리아는 삼국협상 측의 아군으로서 참전하였습니다.

사진: **전차**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림: **병사를 모집하는 포스터** (1917년 미국)

지도: **제 1 차 세계대전** 일본은 연합국으로서 참전하여, 독일이 중국으로부터 조차하고 있던 산둥반도와 청도[靑島], 독일령인 남양제도의 일부를 점령하였습니다.

러시아혁명

러시아는 대전 후반에 들어서, 도시에서 식량과 연료가 부족해 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 1917년, 수도

페테르부르크(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민중과 병사가 빵과 평화를 요구하며 소비에트라는 자치 조직을 결성해 들고 일어나, 황제는 퇴위하고 제정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도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같은 해에 레닌의 지도로 정부는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성립하였습니다.

▷해 보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나라를 조사해서 써 보자.

사진: 침몰하는 영국선 루시타니아호 (1915년)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미국 국민도 다수가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후에 미국이 참전하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와 강화 원칙

소비에트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하고, 무배상·무병합·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한 강화를 참전국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참전국으로부터 무시되었기 때문에, 1918년 단독으로 독일과 강화를 맺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는, 그 후의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22년 소비에트정부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이 되었습니다.

2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

일본의 참전

일영동맹[日英同盟]을 체결하고 있던 일본은 1914(다이쇼 3)년 8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태평양에 있는 독일의 군사 거점을 점령했습니다. 이듬해 일본은 중국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21개조[條]의 요구(주 1)**를 제출하고, 그 대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측의 강한 반발과, 일본에 대한 구미 여러 나라의 경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혁명으로 소비에트 정부가 성립하고, 소비에트 정부는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어 연합국측에서 이탈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확대를 우려한 연합국측은 공동으로 시베리아에 출병하고, 일본도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시베리아 출병**)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철병한 후에도, 1922년까지 병력을 주둔시켰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주 1. 요구 내용은 남만주에서 일본의 권익을 확대하고 기한을 연장할 것, 산둥 반도[山東半島]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권익을 일본에게 넘기는 것 등이었습니다.

대전 경기[大戰景氣]

제1차 세계 대전중 세계적으로 배가 부족해져, 일본의 배가 활발히 이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는 해운업과 조선업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일본은 세계 유수의

해운국이 되었습니다. 약품·화학·비료 등의 국산화도 진행되어 중화학공업이 발전했습니다.

또한 생사와 면사·면직물의 수출이 급증해, 생산은 한층 활발해 졌습니다. 동력원으로서 증기를 대신해 전력이 널리 이용되게 되어, 수력발전소가 각지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전에 없는 호경기를 맞이하고(주 2),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菱] 등 재벌(주 3)의 힘도 한층 강해졌습니다.

주 2. 이 당시 호경기에 의해 단기간에 큰 이익을 올린 사람들은 「나리킨」(역주: 벼락 부자)이라 불렸습니다.

주 3. 일족·한 집안에 의해 결합된 자본가에 의한 기업의 모임.

쌀 소동

경제의 번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한편으로 물가가 비싸지고 특히 쌀값이 급상승해(주 4) 사람들의 생활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1918년 도야마현[富山縣]에서 일어난 쌀의 염가 판매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신문으로 전국에 보도되자,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각지에서 민중이 쌀상점과 정미회사[精米會社]를 습격하는 **쌀소동**[米騷動]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부는 쌀의 염가 판매를 행하고 군대를 출동시켜 소동을 진정시켰습니다.

주 4. 오사카에서는 1918년 1월에 1석[石] 23엔 78전이었던 쌀 가격(1석=180ℓ=150kg)이, 1920년 1월에는 55엔 47전이 되었습니다.

그림: **쌀소동** (「쌀소동 그림 두루마리」 도쿠가와미술관 소장) 쌀가게를 습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관이 쫓아서 해산시키고 있습니다(나고야 시내). 쌀 소동은 42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달했습니다.

사진: 「**쌀의 염가 판매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보도하는 신문 (1918년 도야마현[富山縣]) 일본해 연안에서는 돈을 벌러 나가는 어민이 많아, 집을 지키는 여성들이 생활난으로부터의 구제를 바라고 일으킨 집단 행동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림: **백엔 지폐를 태우는 「나리킨**[成金]」 당시의 100엔은 지금의 20-30만엔 정도에 해당합니다. 나리킨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판한 풍자화.

▷해 보자: 지역에서 일어난 쌀소동을 조사해 보자.

3 부전[不戰] 서약 — 국제연맹과 민주주의의 확대

파리 강화회의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다이쇼 7)년이 되자, 동맹국측이 패배를 거듭하고, 독일 국내에서도 혁명이 일어나 결국 휴전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해에 끝이 났습니다.

1919년, 연합국은 파리 강화회의를 열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원칙 아래 독일과 **베르사유조약**을 맺었습니다. 독일은 모든 식민지와 영토의 일부를 잃고, 군비 제한이나 고액의 배상금 지불을 지시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동유럽에서는 폴란드 등 많은 나라의 독립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독립이나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대한 중국의 항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식민지는 영국, 프랑스 등에 위임통치령으로 배분되고, 일본도 중국에서의 독일 권익을 인계받아 남양제도[南洋諸島]를 위임통치령으로 지배하였습니다.

국제연맹의 성립

강화회의에서는 **국제연맹**[國際連盟]의 설립도 결정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은 세계 각국이 국제 분쟁을 협력하여 해결하고 평화를 지키려고 한 역사상 최초의 조직이었습니다. 1920년 42개국이 참가해서 발족하였습니다.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패전국과 러시아가 제외되었고, 그 밖에 미국도 의회의 반대로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대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주 3)

주 3.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1926년, 소련은 1934년에 가맹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진: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 삿포로농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과 독일에 유학하고, 그 후 교육자로서 많은 인재를 키웠습니다. 국제연맹 본부의 사무국차장으로서 활약했습니다.

지도: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 이 중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에 의해 병합되어, 1991년에 독립을 회복하였습니다.

지도: **일본 위임 통치령의 범위**

민주주의의 진전

대전이 끝나자, 참전 각국과 신 독립국에서는 의회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전후에 공화국으로 바뀐 독일에서는 **바이마르헌법**이 제정되어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보통선거권이 인정되고,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었으며, 그 외에도 복지는 나라의 책임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남녀 평등의 보통선거는 1920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1928년에 영국에서도 실현되었습니다.

사진: **바이마르헌법 하에서의 보통선거** (1919년 독일)

4 들끓는 독립의 목소리 — 아시아의 독립 운동

3·1독립운동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는 1919(다이쇼 8)년 3월 1일, 경성[京城](현재의 서울) 등에서 조선의 독립이 선언되고, 거리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짖는 행동이 일어나 조선의 전 국토로 퍼져 나갔습니다. (3·1독립운동) 이 운동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으로 진행되었으나, 일본은 군대와 경찰력으로 이를 탄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 사람들은 각지에서 들고일어나, 독립 운동은 조선의 전 국토, 나아가서는 만주 등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5월까지 맹렬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지도: **조선의 독립 운동** 약 200만 명이 참가하여,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 민족의 의사를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5·4운동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에서의 독일의 권익을 일본이 이어받기로 결정되자, 1919년 5월 4일, 베이징[北京]의 학생들이 이에 항의했습니다. 이윽고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노동자와 상인도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5·4운동)

그 즈음 쑨원은 중국 국민당을 창설하여 혁명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운동도 고조되어, 1921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창설되었습니다. 쑨원은 소련을 비롯해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고, 혁명 운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쑨원이 죽자,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는 열강 및 자본가 등과 손을 잡고, 1927년 난징[南京]에 국민정부를 세워 중국 공산당과 대립했습니다.

인도의 비폭력 운동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인도인을 병사로서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 대가로 영국은 인도에 자치[自治]를 부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민족 운동을 탄압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간디 등은 인도의 독립을 주장하고 비폭력·비협력·불복종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은 이를 탄압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인도의 독립 운동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사진: **실을 찾는 간디** 간디는, 인도의 진정한 적은 영국이 아니라 근대 문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간디는 기계가 아니라 수동식 물레로 실을 자랐습니다.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면사를 생산하지 않는 수동식 물레와 그것을 사용해서 짠 면포를 입을으로써 영국의 면제품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항의 행동이었습니다.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 터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민족운동·독립운동이 활발해 졌습니다. 서아시아의 터키는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조약에 의해 영토를 분할당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1923년 터키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이슬람 사회를 근대 서구형 사회로 바꾸고자, 법률·문자 등의 전환, 여성 해방 등에 힘이 기울어졌습니다.

5 데모크라시의 물결 - 정당 정치와 사회 운동의 고조

민중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본 사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사진: **보통선거의 실현을 위해 모인 대 집회** (1919년 도쿄·우에노공원)

「보통선거란 어떤 선거일까. 그리고 왜 필요할까.」

정당 정치[政黨政治]의 확립

메이지 시대 말기부터 민중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정당의 힘도 점차로 커졌습니다.

1913(다이쇼 2)년에는 「헌정 옹호[憲政擁護]」를 주장하는 운동이 고양되어, 번벌[藩閥](주 1)인 가쓰라 내각[桂內閣]을 퇴진시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도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등이 민본주의를 주창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1918년, 중의원[衆議院]의 제 1당인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 총재 하라 다카시[原敬]가 내각을 조직하였습니다. 중의원 의원이 수상이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라 내각은 내각의 대부분이 정당의 당원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정당 내각**[政黨內閣]으로, 선거권을 확대하여 강한 정당 정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주 1. 메이지유신에 공헌한 사쓰마번과 조슈번 등의 출신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사진: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정치는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를 주창하였습니다.

사진: **하라 다카시**[原敬] (모리오카시 하라 다카시기념관 소장) 번벌과 관계 없는 구 모리오카번(지금의 이와테현)출신으로, 「평민 재상」이라 불리어 기대를 모았습니다.

사회 운동의 고조

제1차 세계 대전 말기에서 전후[戰後]에 걸쳐, 국내에서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도로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쟁의가 빈번히 일어나고, 1920년에는 일본 최초의 메이데이도 행해졌습니다. 농촌에서는 소작료의 인하와 경작 할 권리를 지주에게 요구하는 **소작쟁의**[小作爭議]가 일어나고 일본농민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을 사회적 차별로부터 해방시켜 그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운동은 메이지시대 말

경부터 **히라쓰카 라이초** 등에 의해 추진되고, 대전 후에는 부인참정권[婦人參政權] 실현을 목표로 한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회 생활을 하는 속에서 심각한 부락 차별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은, 1922년 **전국스이헤이사**[全國水平社]를 만들어 해방과 자유·평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홋카이도[北海道]에서는 아이누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2)

주 2. 1930년에 홋카이도 아이누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히라쓰카 라이초와 「청탑**[靑鞆]」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청탑」은 라이초가 중심이 되어, 여성 만으로 편집해서 발간한 잡지입니다.

사진: **메이테이에 참가하는 여성들**(1920년)

스이헤이사 선언(일부) 전국스이헤이사창립 대회는 1922년 3월 3일에 교토시에서 열려, 약 3000명이 회장[會場]에 모여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할 것을 호소한 스이헤이사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비굴한 말과 비겁한 행위에 의해 선조를 부끄럽게 하고 인간을 모독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인간 세상의 냉정함이 얼마나 차가운가, 인간을 돌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진심으로 인생의 따듯함과 빛을 회구하고 예찬하는 것이다. 스이헤이사는 이렇게 태어났다. 인간 세상에 따듯함이 있어라, 인간에게 빛이 있어라.

보통선거와 치안유지법

1924년부터 1932년까지는 중의원 세력을 배경으로 한 정당 내각이 이어졌습니다.

1925년에 호헌파[護憲派]인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내각 하에서 **보통선거법**이 성립되어, 납세액과 상관없이 25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보통선거)(주 3) 한편,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져서 천황 중심의 국가 형태에 대한 변혁을 피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운동은 단속하였습니다.

주 3. 재산·납세액·출신·신분 등에 의한 제한이 없는 선거 제도

▷해 보자: 이 시대에 어떤 운동이 있었는지 운동 별로 정리해 보자.

6 대중 문화의 형성 - 도시 생활의 확대와 라디오 방송

교육과 문화의 확대는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간 것일까요..

사진: 다이쇼시대[大正時代]의 도쿄역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역을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 191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서양풍의 훌륭한 역을 만든 것일까. 국민 생활은 풍요로워졌을까.」

도시 생활

제1차 세계 대전을 낀 다이쇼시대에서 쇼와[昭和] 초기에 걸쳐,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주택 지역이 교외까지 확대되고, 도심과 교외를 연결하는 통근을 위한 철도가 발달했습니다. 시내 교통에는 버스와 택시가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생활에서는 가스와 수도가 보급되고, 전등은 농촌에도 확대되었습니다. 셀러리맨이 늘어나고, 또한 타이피스트·버스 차장·전화 교환수 등 여러 가지 직업에 여성이 진출했습니다.

사진: 직업부인[職業婦人] 시전[市電](역주: 시가를 달리는 노면 전차) 안에서 표를 끊는 여성 차장. 직업을 가진 여성이 적었던 이 당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성을 직업부인이라 불렀습니다.

도표: 1921(다이쇼 10) 년 경의 평균적인 급여와 물가

문화의 대중화

대전 후 얼마 안 되어 의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100%가 되어, 국민들 대부분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대학과 고등학교도 설립되어, 국제 경쟁에 대비한 고등교육의 충실이 지향되었습니다.

문화의 대중화에는 신문·잡지·라디오 등의 정보가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문은 전쟁과 재해 등의 보도를 통해 급속히 발행 부수를 늘려, 1일 100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유력지도 출현했습니다. 대중적인 잡지도 잇달아 발행되어, 문고본[文庫本]과 1권 1엔의 문학 전집 등이 활발히 출판되었습니다. 또한 1925(다이쇼 14)년에는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어, 국내외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전국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민의 오락으로서도 영화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학의 분야에서는,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實篤]와 시가 나오야[志賀直哉]처럼 인간애[人間愛] 등의 입장을 내세운 작가들이 활약하고, 또한 노동자와 농민의 입장에 서서 사회 문제를 취급한 문학도 탄생했습니다. 학문과 언론의 분야에도 자유주의적 경향이 퍼지고, 사회주의 사상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진: 쇼와 초기의 고베[神戸] 거리

사진: **라디오방송 개시** 라디오 방송은 도쿄·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에서 따로 시작되었습지만, 얼마 안되 통합되어 일본 방송협회(NHK)가 설립되었습니다.

▷해 보자: 다이쇼에서 쇼와 초기의 문화를 조사해 연표로 만들어 보자.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와 그 영향>

1923년 9월 1일, 사가미만[相模灣]을 진원[震源]으로 하는 매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 관동 지방을 덮쳤습니다. 지진과 화재로 도쿄·요코하마를 비롯해 관동 지방 남부는 큰 피해를 입어, 재해를 당한 가옥은 약 70만 호, 사상자·행방불명자는 14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대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의 뜬소문이 퍼져,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自警團]과 경찰·군대 등에 의해 많은 조선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자나 노동운동가 중에도 살해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

1 독재자의 등장 - 세계 공황과 파시즘

각국은 세계 공황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대응해 간 것일까요.

사진: **무솔리니**(원 가운데, 이탈리아)와 **히틀러**(중앙, 독일)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국민에게 무엇을 호소하여 지지를 받은 것일까.」

세계 공황과 그 대책

1929(쇼와 4)년,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미국을 불경기가 덮쳐,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불경기는 전세계를 휩쓸었으며 그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세계공황**[世界恐慌]」이라 불리었습니다.

1933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을 실행해서 정부의 힘으로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도와 실업자를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본국과 식민지에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배격하는 **블록 경제**를 시행해서 불경기에 대항하였습니다. 블록 경제는 무역에 의존하던 다른 나라의 경제를 더욱 고통 받게 하였습니다.

사진: **배급되는 식사를 얻기 위해 긴 행렬을 이룬 실업자**(1930년 미국)와 **뉴딜정책으로 건설된 댐의 하나인 노리스댐** (미국)

파시즘 국가의 등장

이탈리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경제의 혼란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당은 군부·지주·경영자 등의 지지를 받아 세력을 확대시켰습니다. 무솔리니는 1922년 정권을 잡자, 의회의 권리를 박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해서 독재 정치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는 **파시즘**이라 불리었습니다.

세계공황 하에서 사회 불안이 확산되자, 사람들은 파시즘 정치에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독일에서는 파시즘을 지향하는 나치당(주 1)의 히틀러가 당수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도 독재자가 되어, 반대파와 유대인을 박해하였습니다.

주 1. 파시스트당, 나치당 모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누르고, 의회 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정치의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나치당은 인종 차별 사상을 주창하였는데, 특히 유대인을 적대시했습니다.

사진: **채플린(Charles S. Chaplin)의 영화 독재자** (1940년) 배우이면서 영화 감독이기도 했던 채플린은 영화 속에서 히틀러를 비판하였습니다.

▷해 보자: 세계 공황을 각국은 어떠한 정책으로 극복하려 했는지 정리해 보자.

그림: 「**게르니카**」(1937년 피카소 작, 왕립 소피아왕비미술관 소장) 스페인 내란(1936-1939) 당시,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마을 게르니카가 독일의 무차별 폭격을 받은 것에 항의해 그린 그림입니다.

반[反]파시즘과 소련

히틀러는 베르사유조약을 무시하고 재군비를 강행하고, 무솔리니도 1935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침략했습니다. 이러한 파시즘 나라들의 행동에 반대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반파시즘 세력이 결집해 인민전선[人民戰線]이라 불리는 정부가 조직되었습니다.

소련은 인민전선을 지지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스탈린의 독재가 강해지고, 사회주의 건설을 강하게 추진해서 저항하는 농민과 소수민족은 탄압받았습니다.

2 고통으로 향하는 일본 - 만주사변에서 국제연맹 탈퇴까지

일본은 세계 공황에 의한 타격을 어떻게 타개하려고 했을까요.

사진: **은행의 예금 인출 소동** (1927년 도쿄) 「예금을 못 찾게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일제히 예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으로 달려 갔습니다.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일까.」

일본을 덮친 불경기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에 의한 타격으로 일본 경제는 혼란이 계속되어, 많은 은행이 경영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 1) 1930년대 초부터 세계 공황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 일본 경제는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생사 수출이 줄고 누에고치 가격은 내렸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양잠 농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홋카이도[北海道]·도호쿠 지방[東北地方]에서는 대 흉작이 들어, 「딸을 파는 행위」와 「결식 아동」이 늘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임금의 삭감과 인원 정리에 반대하는 노동 쟁의가 자주 발생하였고 농촌에서는 소작 쟁의가 늘어 났습니다.

주 1. 이것을 계기로 큰 은행이 연달아 중소 은행을 합병하고 재벌의 중핵[中核]으로서 경제계에 커다란 힘을 발휘했습니다.

도표: 실업자와 실업률의 변화

진척되는 중국의 통일

중국에서는 국민정부를 세운 장제스가 공산당을 억누르고 각지의 군벌을 물리쳐, 전국을 거의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만주(현재의 중국 동북 지방) 등에서 일본이 인정받고 있던 여러 가지 권익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만주는 일본의 생명선이다」라면서, 무력을 사용해 만주를 세력하에 두자는 주장이 높아졌습니다.

만주사변[滿州事變]

1931(쇼와 6)년 9월, 만주에 주류하고 있던 일본군(관동군[關東軍])은 평토편[奉天](현재의 선양[瀋陽]) 교외에서 남만주철도 선로를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이를 중국측이 했다는 구실을 붙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확대 방침을 표명했으나, 일본군은 이를 무시하고 반년 만에 만주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만주사변) 뒤이어 예전의 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溥儀]를 원수로 삼아 「만주국[滿州國]」을 만들게 해, 사실상 일본이 만주국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주 2)

중국은 이 움직임을 일본의 침략이라고 국제연맹에 호소했습니다. 연맹은 조사단의 보고를 기초로, 1933년 「만주국은 인정할 수 없고, 일본군은 점령지에서 철퇴하라」는 권고를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연맹을 탈퇴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주 2. 많은 일본인이 「만주국」 정부에서 중요한 관직에 앉았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많은 농민이 일본에서 만주로 집단으로 이주했습니다.

사진: 만주사변을 보도하는 신문 (1931년 9월 19일)과 「만주는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호소하는 신문 (1931년 10월 27일).

사진: 만몽개척[滿蒙開拓] 청소년 의용군 군부는 만주로의 이민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소년들을 「의용군」으로 모집했습니다.

▷해 보자: 당시 만주에는 일본인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보자.

<만주사변과 국제 사회>

만주사변이 시작되자, 일본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신문이 일본군의 행동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기사를 내걸고, 좀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는 일본 정부가 사변을 확대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잇달아 군사 행동을 확대한 데에 강한 불신감을 가졌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을 비난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일본의 처지는 점차 곤란해져 갔습니다.

3 정당 정치의 종언 - 군국주의[軍國主義] 고조와 일중전쟁[日中戰爭]

군국주의[軍國主義] 고조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고, 군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정당 정치가나 재계인의 암살이 빈번히 일어나고, 1932(쇼와 7)년 5월 15일에는 해군 청년 장교들이 수상 관저를 습격해 만주사변에 부정적이던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수상을 사살하였습니다. (5·15사건) 이 사건으로 정당 내각은 종언을 고했습니다.

다시 1936년 2월 26일에는 육군 청년 장교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대신들을 죽이고 도쿄 중심부를 한때 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26사건) 반란군은 부패한 정치가를 넘어뜨리고 천황 중심의 나라를 세워 위기를 넘기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군부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 동시에 정치상의 발언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내 군국주의의 움직임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일중전쟁[日中戰爭]의 시작

1937년 7월, 중국의 베이징 교외에서 일중 양군의 충돌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일중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에는 상하이[上海]에서도 충돌이 일어나,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채 일본군은 점차 전선을 확대하여, 그 해 12월에는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했습니다. 이 때 일본군은 혼란 속에서 많은 포로와 주민을 살해하여,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난징사건)(주 2)

주 2. 이 사실은 당시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이 사실을 안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였습니다.

중국 전 국토로 확대되는 전쟁

중국에서는 1930년대 중반, 장제스가 지도하는 국민정부와 **마오쩌둥**[毛澤東]이 지도하는 중국 공산당 간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은 서로 협력하여 일본에 저항할 것을 호소하여 1936년 내전은 정지되었습니다. 일중전쟁이 시작되자,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미국·영국·소련 등의 원조를 받아 일본과 싸웠습니다.

일본군은 중국 각지를 점령했으나,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한 채 중국 민중의 끈질긴 저항을 받아 전쟁이 장기화되어 갔습니다.

지도: **일중전쟁의 확대**

사진: 난징 점령 소식에 들끓는 긴자[銀座] 거리(도쿄)

사진: **마오쩌둥** 제2차 세계대전 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사진: **광둥**[廣東]을 점령한 일본군이 항일 간판을 보고 있다.

4 총 동원 전쟁 체제 - 전쟁을 위한 생활 통제

정부는 전쟁 수행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요.

사진: **탄환을 닦고 있는 중학생** (1941년 나고야시)

「왜 중학생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의 성립

전쟁이 시작되자, 국내에서는 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군사비에 충당되었습니다. 국민은 「국민정신총동원령」의 구호 아래, 부족한 물자를 견디고 절약하여 전쟁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기운이 높아 갔습니다. 1938(쇼와 13)년에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의회의 승인없이 국민 생활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군수 공장 등에서 일하게 되었고 자금과 물자는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나아가 쌀, 목탄, 설탕 등이 배급제가 되고 의류는 점수절표제([點數切符制,역주:미리 구입 가능한 갯수를 표시한 표를 발행하여, 이것과 함께 돈을 내고 의류품을 사도록 함)가 되었습니다.

사진: **도나리구미**[隣組] 단위의 등록 배급제가 된 생선 가게 앞 (1943년)

사진: **전시 중의 의류표** (1942년) 1인 1년 분, 도시에서는 100점, 군[郡]지역에서는 80점으로 정해졌습니다. 1944년에는 30세 이상 40점, 그 미만은 50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사진: **도나리구미의 방화 훈련** (1940년) 배급과 같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연락과 방공 연습 등도 도나리구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와 도나리구미[隣組]

1940년에는 노동조합이 해산되고 대일본산업보국회[大日本産業報國會]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당과 정치 단체가 해산하여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로 흡수되었습니다. 의회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 1) 또한 대정익찬회의 하부 조직으로서 도나리구미[隣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서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주민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와 사상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어, 자유주의자와 그리스도교도 등, 전쟁과 군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상은 엄격하게 단속되었습니다.

주 1. 1942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의 대다수는 군부의 지지에 의해 추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시 중의 국민 생활>

배급제 뿐만 아니라, 「사치는 적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생활에 여러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주식으로서 쌀 외에 감자류와 호박 등을 자주 먹었습니다.

사진: 「사치는 적이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여성들

▷해 보자: 인터넷에서 전시 중의 국민 생활에 관해 기술한 내용을 찾아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황민화[皇民化] 정책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화시키려는 황민화 정책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일본어 사용과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일(주 2)이 강행되고, 신사[神社] 참배가 강요되었습니다. (주 3)

주 2. 이를 창씨개명[創氏改名]이라고 부릅니다.

주 3. 이러한 정책은 대만에서도 추진되었습니다.

5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났고, 일본은 어떻게 관여한 것일까요.

사진: **연행되는 유대인** 독일은 점령한 폴란드의 바르샤바 등에 비좁은 거주구를 만들어

유대인을 감금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이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독일의 침략

1938(쇼와 13)년,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계속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를 독일령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국제연맹은 당시 히틀러의 행동을 억제할 힘이 없었지만,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에게도 영토를 요구하자, 영국·프랑스는 독일과 대립하였습니다.

독일은 그때까지의 외교 방침을 바꾸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 같은 해 9월 폴란드를 침공하였습니다. 영국·프랑스는 폴란드를 지원해서 독일에 선전[宣戰]을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런던 공습 독일군의 공중 폭격에 의해 피해를 입은 런던 시내의 모습입니다.

사진: 히틀러유겐트 일행의 방일 (야마나시현 야마나카호[山中湖]) 히틀러유겐트란 나치당 공인의 청소년 조직. 남자·여자 모두 14세-18세로, 남자는 장래의 병사로서, 여자는 장래의 병사를 낳는 어머니로서 육성하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지도: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유럽 독일·이탈리아·일본의 협력 관계를 일컬어 추축[樞軸]이라 불렀습니다.

일·독·이 삼국동맹

독일은 1940년에 프랑스를 항복시키고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하였습니다. 독일의 기세를 보고 이탈리아도 참전하여, 전쟁터는 발칸반도와 북아프리카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940년, 일본·독일·이탈리아는 1937년에 맺은 삼국방공협정[三國防共協定]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여 **삼국동맹**[三國同盟]을 맺었습니다.

독·소전과 연합국의 결속

1941년 6월 독일은 불가침조약을 깨고 소련을 기습해 독소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영국은 소련을 도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칙을 정리한 대서양헌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삼국동맹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연합국으로 합쳐졌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인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인종차별 주의를 실행해, 다수의 타국민[他國民]과 유대인을 노예처럼 일을 시키거나 수용소에 가두어 죽이거나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의 지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 협력을 거부하거나 독일군의 행동을 방해하는 저항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레지스탕스**)(주 1)

주 1. 레지스탕스 사람들은 군용 철도를 방해하거나 박해받는 사람들을 구하거나 했습니다.

▷해 보자: 독일이 침략한 나라들을 지도에서 확인해 보자.

사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폴란드) 입구에는 「일하면 자유가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가스 등에 의해 많은 유대인이 살해되었습니다. 「인류가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되는 부[負]의 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6 점령하의 사람들 –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과 동남아시아

미국·영국과의 개전[開戰]과 동남아시아 침략

일본군은 중국 전선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1940(쇼와 15)년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에 침공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이 원조하고 있는 중국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석유나 고무 등의 물자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에서 구미의 세력을 쫓아내고, 아시아 민족만으로 번영해 나가려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제창했습니다. 뒤이어 일본이 인도차이나 남부를 침공하자, 미국은 석유·철 등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군이 철병할 것을 요구해 대립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일미 교섭이 계속되었으나, 잘 진척되지 않아 일본은 미국과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1941년 10월, 육군 대신[陸軍大臣] 도조 히데키[東條英機]가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일본 육군은 말레이 반도에 상륙하고, 해군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주 2)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전 초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각지와 남태평양의 섬들을 차례차례 점령했으나, 1942년 미드웨이해전의 패배를 고비로 전황[戰況]은 불리해져 갔습니다.

오랫동안 구미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아시아 사람들은 일본군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점령지에서는 주민에게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거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수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군에게 저항하고, 독립을 향한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주 2. 정부는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이 전쟁을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탈리아·독일의 항복

유럽에서는 1942년 후반부터 연합국군의 반격이 강해졌습니다.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을 격파하고, 미군·영국군도 이탈리아를 항복시켰습니다. 또한 연합국군은 북프랑스에

상륙해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던 시민들과 함께 파리를 해방하였습니다. 1945년, 결국 히틀러는 자살하고 5월에는 독일이 항복하였습니다.

7 갖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이길 때까지는 – 전시하의 국민 생활과 식민지

전쟁과 국민 생활

전쟁은 총력전이 되어 일본 국내의 국민뿐만 아니라 식민지나 점령지 사람들도 병력·노동력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이과계 이외의 대학생·고등전문학교생이 징병[徵兵]되어, 학업 도중에 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학도 출진[學徒出陣]) 많은 남성이 전쟁터로 소집되자, 공장이나 광산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학생이나 여성의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중학생이나 여학생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근로 동원) 또한 농촌에서는 농기구나 비료뿐 아니라 징병으로 일손도 줄었기 때문에 식료품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이나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끌려와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모진 노동 조건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공습과 소개[疎開]

1944(쇼와 19)년 7월, 일본을 직접 폭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이판 섬이 미국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의 많은 도시나 군사 시설은 심한 공습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1945년 3월 10일 도쿄 공습에서는 하룻밤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불이 나 살 곳을 잃었습니다. 공습이 치열해지자, 도시부의 소학생은 집단으로 지방에 소개되었습니다. (학동 소개[學童疎開])

조선과 대만

조선과 대만에서는 전쟁 말기에 지원병 제도가 바뀌어 징병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본군 병사」로 전쟁터에 보내지고, 많은 조선인 여성 등도 공장 따위에 보내졌습니다.

8 엄청난 사망자들 위에 – 군국주의의 패배

제 2차 세계대전은 어떠한 경과로 종결된 것일까요.

사진: 미군에 의한 동굴을 향한 화염 방사

사진: 히메유리 탑(오키나와현 이토만시[糸滿市]) 간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던 「히메유리 학도대[學徒隊]」가 지하호[地下壕]에서 굶주림과 자결로 죽어 간 것을 추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장[戰場]이 된 오키나와[沖繩]

1945(쇼와 20)년 3월, 미군이 오키나와[沖繩]에 상륙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중학생과 여학생을 포함한 많은 현민[縣民]이 수비대[守備隊]에 배치되는 등 격렬한 전투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오키나와전[沖繩戰]에서는 당시 약 60만 명의 현민 중 사망자가 12만 이상에 이르렀고, 전투는 일본이 항복한 후에도 1개월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원폭 투하와 일본의 항복

1945년 2월, 미국·영국·소련의 수뇌는 흑해 연안의 얄타에서 회담을 하고, 소련의 대일 참전과 지시마[千島](역주: 쿠릴 열도) 영유 등을 비밀리에 결정했습니다. 7월에, 삼국 수뇌는 다시 독일 포츠담에서 회담하고, 일본의 항복 조건을 제시한 **포츠담선언**을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미국은 전후의 세계에서 소련보다 우위에 서려는 목표도 있어서, 8월 6일에는 히로시마[廣島]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원폭)**을 투하했습니다. 사망자는 피폭 후에 죽은 자를 포함해 히로시마가 20만 명 이상, 나가사키가 10만 명 이상에 달했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편, 8월 8일에는 소련이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라, 일소중립조약을 파기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여 만주와 남가라후토, 지시마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은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했습니다. 국민은 이튿날인 8월 15일, 천황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종전[終戰]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을 비롯해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 사람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전쟁 종결에 따라 중국에 있던 많은 일본인이 굶어 죽었을 뿐 아니라, 잔류[殘留] 고아로 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항복한 약 60만 명의 일본 병사가 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로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시베리아 억류) 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사상자 수는 군인·일반 시민을 합해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도표: 포츠담선언(일부 요약)

- 6 일본 국민을 속여서 세계 정복에 착수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한 자의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한다.
- 8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도[小島]들로 한정된다.
- 10 모든 전쟁 범죄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언론, 종교 및 사상의 자유, 또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확립된다.

<근대를 살아간 사람들> 외국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

스기하라 지우네[杉浦千畝]과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스기하라 지우네(1900-1986)

1940년 7월, 리투아니아의 수도 카우나스의 일본 영사관 앞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에 점령된 폴란드로부터 겨우 목숨을 부지해 도망쳐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남겨진 방법은, 시베리아 철도로 소련을 횡단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미국 등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통과해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증(비자)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스기하라는 일본 외무성에 일본을 통과하기 위한 비자를 발행해도 좋은지 문의했습니다. 외무성에서 전보가 오자 스기하라는 뚫어지듯이 응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본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 나라의 입국허가증이 없는 한, 비자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스기하라는 다시 전보를 쳤습니다. 「지금은 입국 허가증이 없습디만, 일본에 도착할 무렵까지는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무성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독일·이탈리아와 군사면에서 서로 협력하는 삼국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기하라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외무성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스기하라는 만일 자신이 비자를 발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모여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비자를 발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약 1개월 간,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비자를 계속해서 발행했습니다.

스기하라가 비자에 싸인을 계속해서 한 덕분에, 거의 60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의 생명이 구해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귀국한 스기하라는, 외무성을 그만두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유는 카우나스에서 외무성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영사관 앞에서 비자의 발행을 요구하는 유대인들

아사카와 다쿠미(1891-1931)

한국의 서울 교외에 있는 공동묘지에 한 사람의 일본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묘석에는,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 속에서 살아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 라고 한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은 1910년 한국을 병합하고 독립운동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일본인과는 달리, 아사카와는 조선의 백자(도자기의 종류)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아사카와는 1891년, 야마나시현 기타코마군 가부토촌[山梨縣北巨摩郡甲村](지금의 호쿠토시[北杜市])에서 태어나, 현립 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아키타현[秋田縣]에서 임업 기술자로 일한 뒤,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던 조선으로 건너가 임업 시험장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무가 없는 산이 많았던 조선의 산들에 숲을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해, 눈부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활약했습니다.

일로 조선 전도를 걷는 한편으로 조선의 민예와 고려·조선의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 형과 함께 백자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카와가 바지에 게타(역주: 일본식 나막신)를 신고 거리를 걷는 모습은, 때때로 조선인으로 오인당할 정도였습니다. 아사카와는 결코 유복하지 않은 수입 중에서, 조선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학업을 위한 비용을 원조하기도 해서 많은 조선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1920년에는 지바현[千葉縣]에 살고 있던 저명한 민예평론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를 방문해 조선민족미술관의 설립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1924년에 지금의 서울에 완성된 이 미술관에는 단지와 단상, 병풍 등 300점을 넘는 조선의 공예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사진: 서울 교외에 있는 아사카와 다쿠미의 무덤